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74 검은색과 국가

모잠비크 국기의 검은색은 '아프리카 대륙' 상징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연방의 국기는 1978년 처음 제정됐으며 이후 1981년과 1988년 그리고 1990년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제정됐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녹색 바탕에 노랑과 검정 그리고 하양 3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십자가 가운데 빨간 원에 도미니카 연방의 국조인 황제 아마존 앵무와 10개의 초록별이 그려져 있다. 검정은 지구와 아프리카의 조상과 비옥한 국토를 상징한다.

●독일
 독일의 국기는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처음 국기로 지정되었으며,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검정과 빨강 그리고 노랑 3가지로 구성된 같은 비율로 가로로 배치된 삼색기이다. 독일의 국기는 관공서용과 민간용 2가지가 있다. 관공서용으로는 독일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장이 있는 것이며, 민간용은 이것을 제외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1949년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옛 바이마르 공화국의 삼색기(三色旗)를 부활시켜 지금에 이르렀다.

검은색과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의 삼색은 극우와 극좌에 대해 민주주의

와 중도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표방한 정당 색이다. 독일의 나치 친위대를 위시해 히틀러 유겐트(나치스 독일의 청소년 조직)는 검은색 옷을 입었고, 검은색은 위협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엄격한 권위와 규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검은색은 부와 권력을 표현하기도 한다. 에바 헬러(Eva Heller)의 연구에 의하면, 독일 사람의 이름 중 검정인 슈바르츠(Schwarz, 검정)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김씨나 이씨만큼. 이는 중세 독일의 봉건시대 사람들이 남성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던 검은색을 좋아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검은색은 남성적이며, 힘이 있고, 점잖다. 그래서 검은색은 성(性)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1999년에 제작된 전화번호부를 참고로, 독일에서 사용한 색이름이 성으로 사용한 예다. 검은색(슈바르츠)이 4만9369개이다. 한편 독일어로 '검은 노동'과 '검은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독일의 쓰레기처리 정책으로 검은색 통은 일반 쓰레기를 수거한다.

●러시아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코팅제 생산업체인 듀폰은 '2008 듀폰 글로벌 자동차 색상 인기 도리포트'를 발표했다. 러시아에서는

검은색이 14%로 2위를 차지했다.
 ●멕시코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코팅제 생산업체인 듀폰은 '2008 듀폰 글로벌 자동차 색상 인기 도리포트'를 발표했다. 멕시코에서는 하양과 검은색이 각각 20%를 차지했다.

●모로코
 모로코에서 검은색은 슬픔, 괴로움, 근심, 걱정을 의미한다.

●모잠비크
 모잠비크의 국기는 1983년에 제정됐으며, 모잠비크 해방 전선(FRELIMO, 프렐리모)의 깃발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초록과 검정 그리고 노랑 3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가로줄 무늬 사이로 하얀색이 있고, 왼쪽에 빨간 삼각형이 그려져 있다. 빨간 삼각형 안에는 노란색 별과 펼쳐진 책, 검은색 소총(AK-47)과 깡이가 그려져 있다. 검은색은 아프리카를 상징한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문

독자투고

최근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에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편리함과 접근성 때문에 우리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대여나 반납이 매우 쉽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다 보니 많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 및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 제2종 원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시민 안전 위협

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이 운전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에 취약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부상의 정도가 매우 높고 무면허운전사고 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청소년 무면허운전 증가 이유는 전동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많은 대여업체들이 면허증 등록 없이 대여해주는 등 면허 인증 절차 허술, 단속의

빈도가 낮아 법을 무시하는 풍조,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대한 대여 절차의 엄격한 관리와 법적 규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와 병행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도 절실하고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교통안전 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제현 <목포경찰 상동파출소>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보루 국회 군항밭에 짓발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가 4일 오전 1시1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뉴진스 탈출 배후설” 법적 대응 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뉴진스의 배후에 민 전 대표가 있다고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와 하이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법인 세종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유선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큰아씨의 소개로 한 기업의 실소유주를 만났고, 뉴진스 계약이 종료되기 전 사전 접촉(템퍼링)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만나는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 전경” 스타벅스 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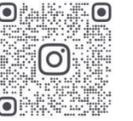
지난달 29일 문을 연 스타벅스 김포에기봉생태공원점 내부 테이블과 창문이 북한 방향을 향해 있다. 전망대에 배치된 망원경을 통해 북한의 건물과 농장을 볼 수도 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 김포에기봉생태공원점은 북한과 불과 1.4km 떨어져 있으며 군사검문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스타벅스로, 외산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로이타는 "스타벅스가 남한의 커피와 북한의 풍경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최근 독특한 일지의 매장 또는 특화 매장을 강화하는 마케팅으로 시장 주목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운송 중 도난됐다

지난 2월 미국의 온라인 골동품 판매 플랫폼에서 구매한 4월 국내로 반입된 비자정문화유산 '칠성아래도'가 운송 과정에서 사라졌다. 국가유산청은 누리집 도난국가유산 정보에 이를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협조요청을 했다. 칠성아래도는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으로,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다만 제작자와 불안 사찰 등에 대한 정보가 화기(畵記)에 기록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도난 정보 제공 혹은 체포에 공로가 있을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